

# Dilemma

딜레마

시나리오 이강민

## 기획의도

다가오는 여름,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작품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처음 도전하는 장르(공포/스릴러)인 만큼 진부하게 풀고 싶지 않았고, 고민 끝에 이전부터 함께 도전하고 싶었던 타임루프와 병합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습니다.

갑작스러운 귀신의 등장으로 주는 공포가 아닌, 일정한 시간 속에 갇혔을 때 오는 공포로 시작, 감동과 반전으로 끝맺을 수 있는 복합장르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.

## 등장인물

**이하연 (여/21)** 낙관적인 성격, 학교라는 타임루프 공간에 갇힌 여주인공.

**김은우 (남/21)** 비관적인 성격, 학교에서 마주하게 된 정체불명의 남주인공.

**서다혜 (여/21)** 이하연의 친구.

**서재욱 (남/21)** 은우를 괴롭혔던 학창 시절 일진.

**최연아 (여/21)** 서재욱의 친구.

## 시놉시스

야심한 시각, 과제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찾기 위해 학교로 향하는 하연. 학교 안에 발을 들이는 이 순간, 너무 익숙한데... '과연 단순 데자뷰일까?' 엄습해 오는 기시감이 말해준다. '아니, 이건 절대 기분 탓이 아니야.' 일정한 시간 속에 갇혀버린 하연, 특정 행동을 반복하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필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며, 또다시 학교 안에 발을 들인다. 이를 인지한 순간, 등장하는 은우가 하연을 기다렸다는 듯 태연하게 큐브를 돌리고 있다.

*"그 큐브는 언제까지 돌리고 있을 거야?"; "다 맞춰질 때까지.."*

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은 분위기 속, 알 수 없는 말들만 주고받는 둘. 둘의 만남으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데, 과연.. 하연은 은우와 함께 죽음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?

## S#1 대학 캠퍼스 내 길거리 - 야외/밤

밤 11시 50분, 음산한 캠퍼스 내 길거리에 서두르는 발소리(E).

과제 제출 마감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.

하연은 친구(서다혜)와 전화하며 강의실에 두고 온 노트북을 찾기 위해 걸음을 옮긴다.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으아~ 진짜 싫다, 과제 하나 때문에 이게 뭐 고생이나  
서다혜(F)        수업도 잘 안 나오는 애가 왜 갑자기 모범생인 척?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응 어쩔, 이번 학기는 진짜 과탑 먹을 거거든요~  
서다혜(F)        내가 잘 못 들었나.. 뭐..? 과탑이요? 허, 그러기엔 이미..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아니, 것보다 여기 진짜 개 무섭다니까!  
서다혜(F)        이 시간에 혼자 학교 다녀올 바엔 과제 하나 버리는 게 낫긴 하지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와~ 지일 아니라고, 제출만 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걸 너무 아깝잖아  
서다혜(F)        그래도 나였음 절대 안 가, 그니까 가방을 잘 챙겼어야지!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아 몰라 짜증 나

## S#2 학과 건물 1층 - 실내/밤

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,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나 이제 학교 들어왔어  
서다혜(F)        야, 서둘러 제출 12시까지잖아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(시간을 확인하며) 미친.. 5분 남았네?!  
서다혜(F)        나는 잔다?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야.. 야! 잠깐만 학교 나갈 때까지만..  
서다혜(F)        아니, 나 내일 오전 강의 있ㅇ.. (치지직)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여보세요? 야! 너 목소리가 끊겨

휴대폰이 갑자기 꺼진다.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는데,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뭐야.. 설마, 배터리가 다 됐나?

문 잠기는 소리 철컹!(E)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까악! 깜짝아..

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열리지 않는데,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오늘 왜 이래 진짜..! 하.. 일단 과제부터 제출하고 생각하자

### S#3 교양 강의실 앞 복도 - 실내/밤

하연이 계단을 올라 숨을 고르고 강의실로 향한다.

알 수 없는 형체가 복도를 걷고 있는 하연의 뒤로 스치듯 지나가는데 하연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,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.

### S#4 교양 강의실 안

가방을 찾아 급하게 노트북을 꺼내고 네이버에 로그인한 뒤, 과제가 첨부된 메일을 보내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12시 정각이다.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휴.. 다행이다

가방을 챙겨 강의실 문을 나오자 처음 상황으로 돌아온다. (제로 컷)

### S#5 대학 캠퍼스 내 길거리 - 야외/밤

(제로 컷) 전화를 하며 걷는 하연.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으아~ 진짜 싫다, 과제 하나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  
서다혜(F)        수업도 잘 안 나오는 애가 왜 갑자기 모범생인 척?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아니, 것보다 여기 진짜 개 무섭다니까!  
서다혜(F)        이 시간에 혼자 학교 다녀올 바엔 과제 하나 버리는 게 낫긴 하지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와~ 지일 아니라고 잠시만.. 근데 나 과제 제출했지 않아?  
서다혜(F)        뭐래 술 먹었냐? 했으면 학교는 왜 갔는데 멍청아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하하 그러게.. 빨리 가야겠다

### S#6 학과 건물 1층 - 실내/밤

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,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나 이제 학교 들어왔어  
서다혜(F)        야, 서둘러 제출 12시까지잖아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(시간을 확인하며) 미친.. 5분 남았네?!  
서다혜(F)        나는 잔다?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맞다 너 내일 오전 강의였지? 그래 얼른 자라  
서다혜(F)        뭐야 오전 강의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? 내가 말했었잖아.. (치지직)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여보세요?

꺼진 휴대폰을 확인하고 멍 때리는 하연, 문 잠기는 소리 철컹!(E)

놀라서 몸이 들썩이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는다.

이하연 (의미심장한 표정으로) 뭐지.. 기분 탓인가..

문을 열어보려다 잠겨있다는 걸 이미 아는 듯 그만둔다.

이하연 일단 과제부터..

(CUT TO) 과제 제출을 마치고 내려오는 하연.

이하연 분명 제출했던 거 같은데.. 문은 열렸으려나

입구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, 목덜미를 잡혀 끌려간다.

이하연 험!

맥없이 쓰러지는 하연의 목을 누군가 조르는데,

의식이 희미해지는 하연의 눈(ECU) - 매치 컷, 처음으로

## S#7 대학 캠퍼스 내 길거리 - 야외/밤

매치 컷 - 하연의 눈(ECU)

서다혜(F) 수업도 잘 안 나오는 애가 왜 갑자기 모범생인 척?

이하연 (말을 끊으며) 아니, 잠시만 여기 뭔가 이상해

서다혜(F) 뭐가? 우리 학교? 지잡대가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 하지 않냐?

이하연 그게 아니라..

휴대폰을 확인하는데 과제 제출까지 8분이 남았다.

이하연 8분이나 남았어..

서다혜(F) 뭐가? 과제 제출이? 그래도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야?

이하연 맞아.. 서둘러야지

## S#8 학과 건물 1층 - 실내/밤

문을 열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데,

서다혜(F) 아니, 왜 그러는데

이하연 일단 전화 끊지 말아 봐

서다혜(F) 나 빨리 자야 돼 내일 오전 강ㅇ.. (치지직)

휴대폰이 꺼지자 어김없이 들리는 문 잠기는 소리 철컹!(E).

이를 무시하고, 강의실을 향해 뛰기 시작하는 하연.

### S#9 교양 강의실 안 - 실내/밤

과제를 제출하고 시간을 확인하니 11시 58분이다.

이하연 12시가 아니잖아..? 다행인 건가..?

이하연(N) 묘한 기시감, 계속 겪다 보니 알겠다. (가방을 챙긴다.)

이건 분명, 단순한 데자뷰 같은 게 아니란 걸 (강의실을 나간다.)

### S#10 계단 - 실내/밤

이하연(N) 이를 자각했을 때 사소한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. (계단을 내려간다.)

### S#11 학과 건물 1층 - 실내/밤

이하연(N)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건 (멈춰서 입구를 바라본다.)

입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하연,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보지만 굳게 잠겨 있다.

이하연 밖에 누구 없어요...?? 저 좀 도와주세요!!

결국 누군가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다.

이하연(N) 나는 결국 죽는다. (F.O)

암전 상태에서 들리는 친구(서다혜) 목소리

서다혜 야.. 야!

### S#12 교양 강의실 안 - 실내/낮

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는,

이하연 헉!

서다혜 언제까지 잘 거야 빨리 가자

이하연 아 뭐야.. 다 꿈이었어..?

서다혜 뭐라고 구시렁대는 거야

이하연 (다혜를 끌어안으며) 나 너무 무서웠어..

서다혜 (하연을 밀어내며) 징그럽게 왜 이래!! 빨리 가방이나 챙겨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가방? 맞아 가방만 잘 챙겼으면..

**하연이 가방을 잡으려고 하자 머릿속에서 “안 돼!”라고 누군가 소리친다.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(머리를 부여잡고) 옥..

서다혜            왜 그래?! 어디 아파?

**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선명하게 들려온다.**

김은우(V.O)    왜.. 왜!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거야!! (괴롭힘 당하는 은우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너도 결국에 날 포기할 거야 (은우 곁을 떠나는 친구의 뒷모습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난 계속 혼자였고.. (밧줄을 들고가는 은우)

이하연(V.O)    아니야...

김은우(V.O)    앞으로도 혼자일 거야.. 평생 (밧줄에 목을 매다는 은우)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아니야...!!

서다혜            뭐가..?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다혜야.. 미안해, 잠시만!

**하연이 들었던 가방을 내려놓고 강의실을 뛰쳐나간다.**

서다혜            야! 어디 가!!

### **S#13 교양 강의실 앞 복도 - 실내/낮**

큐브 돌아가는 소리 속.. 속..(E).

뛰어가는,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어디지..

큐브 돌아가는 소리 속.. 속..(E).

뛰어가는,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어디야!

### **S#14 3층 엘리베이터 앞 의자 - 실내/밤**

**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덩그러니 앉아 큐브를 맞추고 있는 은우를 발견한다.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너 누구야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나..? 나는.. 은우, 김은우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어째서!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(말을 끊고) 너는?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나..? 나는 이.. 하연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퐁! 하하하  
 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왜 웃는 거야 기분 나쁘게  
 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웃기잖아 다짜고짜 하는 이 어색한 통성명 자체가  
 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그건 네가..  
 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이미 알고 있었어 네 이름  
 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어떻게?  
 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그야.. 네가 알려줬으니까  
 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내가?  
 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애초에 난 너를 처음 본 게 아니라서  
 이하연(V.O)    저는 하연이에요 이하연 혹시.. 이름이?  
 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어쨌든.. 내가 궁금한 건 이름이 아니라 내가 꾸 꿈  
 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꿈?  
 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그래 그 이상한 꿈  
 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왜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는데?  
 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그게 무슨 말이야 꿈이 아님 뭔데?!  
 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글썄.. 이번에는 꼭 나를 기억하면 좋겠네  
 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야.. 야!!

## **S#15 교양 강의실 안 - 실내/밤**

엎드려 있던 하연이 서서히 눈을 뜬다.

노트북을 확인해 보니 시간은 이미 자정(12시)을 훨씬 넘긴 뒤였다.

머리에서 울리는 멍멍한 은우 목소리가 가방을 챙기려던 하연의 손을 멈춘다.

이하연 :            (나지막하게) 기억났어.. 여기부터구나

가방을 챙기지 않은 채 강의실을 나간다.

## **S#16 교양 강의실 앞 복도 - 실내/밤**

큐브를 맞추고 있는 은우가 있다.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저기.. 김은우..?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드디어 기억하는구나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(큐브를 보며) 그 큐브는 언제까지 돌리고 있을 거야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(큐브를 돌리며) 다 맞춰질 때까지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그래도 한 면은 맞췄네?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그럼 뭐해, 다른 면이 안 맞는데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줘봐 여기 면이 안 맞을 땐 이 공식을 써서 이렇게.. 자!

**새로 맞춰진 면을 보며,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은우.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우리 혹시 몇 번 만났어?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일흔한 번?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일.. 일흔한 번..?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(웃으며) 음.. 아니, 마흔두 번!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아니 왜 말이 바뀌는데.. 어쨌든 많이 본 거 같긴 하네

**하연의 머릿속에 도망치라는 은우의 목소리가 강하게 들려온다.**

**“넌 여기에 있으면 안 돼 도망쳐.. 도망치라고!!!” 머리가 지끈거리는 하연, 주저앉는다.**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(놀란 듯) 왜 그래?! 괜찮아?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일단 빨리 나가자 여긴 너무 위험해

**강의실 앞을 지나가다 가방을 두고 온 게 생각난 하연.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맞다 가방..!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잠시만..

## **S#17 교양 강의실 안 - 실내/밤**

**강의실로 들어간 하연이 가방을 잡으려는 순간.**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안 돼!!

**다시 처음 상황으로 돌아간다.**

## **S#18 대학 캠퍼스 내 길거리 - 야외/밤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... 어?

**하연이 주저앉는다**

서다혜(F)        여보세요? 하연아..? 하연아!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도대체 뭐가 문제야...

**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꺼내자 기억이 되살아난다.**

**(회상) 하연이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은우에게 건네준다.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 말 들을걸..

김은우 무슨 말?  
이하연 이 시간에 혼자 학교 다녀올 바엔 과제 하나 버리는 게 낫다는 말  
김은우 하연아  
이하연 응?  
김은우 집으로 돌아가  
이하연 아 놀리는 거야 뭐야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 
김은우 친구 말 들으라고 이곳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 
이하연 말이 쉽지.. 말했잖아 똑같이 모든 게 반복된다고  
김은우 모든 게 반복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만나 대화하는 건? 절대적인 게 아  
니잖아 나는 기억해, 그러니까 너도 지금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, 발을 돌려, 절대 다시 돌아오면 안 돼 여기로

**현실로 돌아와서,**

이하연 다혜야.. 나 무서워..  
서다혜(F) 이 시간에 혼자 학교 다녀올 바엔 과제 하나 버리는 게 낫긴 하지  
이하연 그치.. 네 말이 맞아 나 돌아갈래  
서다혜(F) 응..? 그 정도로 무서워?  
이하연 응.. 무서워  
서다혜(F) 그럴 거면 학교는 왜 간 거야 바보야  
이하연 그러게..  
서다혜(F) 너 괜찮아? 상태가 안 좋은데.. 일단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연락해  
이하연 응..

**전화를 끊고 일어나 발을 돌린다.**

**(회상) 은우가 하연에게 받은 사탕을 까서 입에 넣는다.**

이하연 그래 네 말대로 기억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치자 그럼 너는?  
김은우 흠.. 지금 내 걱정할 때냐? 나는 괜찮아  
이하연 걱정한 거 아니거든?? 막 두고 갔다고 원망하지나 마라 진짜..  
김은우 절~대 안 해 그러니까 이 말이 떠오를 때 꼭! 돌아가야 돼 알았지?  
그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..

**현실로 돌아와서,**

사탕을 바닥에 떨군 채 발을 학교로 다시 돌린다

**S#19 3층 엘리베이터 앞 의자 - 실내/밤**

**하연이 은우를 찾아 말을 건다.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야, 김은우 다른 방법 없어? 너랑 같이 나갈 수 있는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 너 설마 기억났는데 다시 돌아온 거야..? 하..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일단 카드 키부터 찾자 잠긴 문을 열어야 하니까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 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아 진짜! 왜? 왜! 몰라 뭐가 됐든 나는 무조건 같이 나갈 거야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 (피식 웃으며) 그래.. 못 말린다 정말

**복도를 걸으며**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 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?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갑자기?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 나는 밧줄 같아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왜?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 매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게 밧줄에 목을 매다는 것과 비슷해서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그게 뭐야.. 이상해 꼭 죽어본 사람처럼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 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..?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 (하연 가방에 달린 키링을 보며) 키링 예쁘다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어..? 아까부터 자꾸 뜬금없는 말만 하네

**하연의 머릿속에 도망치라는 은우의 목소리가 강하게 들려온다.**

**“도망쳐.. 도망치라고!!!”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으으.. 또야

**카드 키를 찾았다.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어? 찾았다! 빨리 가자 은우야

**S#20 학과 건물 1층 입구 앞 - 실내/밤**

**문 열리는 소리 철컥(E).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나와 얼른!

**발을 멈추는 은우**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 도망쳐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 그게 무슨 소리야? 빨리! 또 그 녀석이 쫓아오면 어떡해...!!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 도망치라고!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왜 그러는데?! 같이 가자

**은우가 하연의 목을 잡는다.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험..

**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는 하연.**

**매번 입구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던 게 은우였단 사실이 기억난다.**

**은우가 손에 힘을 빼자 하연이 주저앉는다.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어째서..? 그동안 나를 죽였던 게 너였어?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... 도망치라 했잖아 어서 가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이해할 수 없어..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이해 못 하는 게 당연해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알려줘 왜 그러는지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나는 네가 제일 이해되지 않아..

지금까지 널 죽였고 방금도 죽이려고 했어 무섭지도 않아?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당연히 무섭지.. 기억이 드문드문 떠오르고 뒤죽박죽 섞여있어서  
혼란스럽지만 너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그렇게 궁금하다면 알려줄게 나는 네 가방에 달려 있는 키링과  
똑같은 걸 달고 다니던 녀석 때문에 죽었어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(놀란 듯) 어..?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죽었다고 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그게 무슨..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심한 괴롭힘을 매일 당했어 그걸 지켜보는 애들은 도와줄 기미조차 보이  
지 않았지 오히려 뒤에서 조롱하며 즐기는 애들이 더 많았어 숨통이 조  
여오다 더 이상 죽는 게 두렵지 않아졌을 때 난 스스로 밧줄에 목을 매  
달았어 그 녀석들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끼길 바라며 보란 듯이 학교  
에서 죽어줬는데 결과는.. 오히려 장난감이 사라진 게 아쉽기라도 하듯  
비아냥 거리는 게 전부였지 웃기지 않아?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아니, 잠시만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부모라는 작자도 아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관했지 내가 느꼈던 이  
압박과 고통을 모두가 느끼길 바라서 나는 여기에 남았고 무한한 굴레를  
만든 것도 내가 매일매일 지옥에 살았던 기분을 그대로 느끼게 하기 위  
해서였던 거야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(은우를 끌어안으며) 거짓말이잖아..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저 누군  
가 알아주길 바랐던 거야 그치?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하하.. 무슨 소리를..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얼마나 아팠을까..

**눈물을 흘리는 은우.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정말로 사람을 해하고 싶었더라면 나한테 도망치라고 안 했을 거야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(안고 있는 하연을 밀어내며)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..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그 같잖은 위선이 날 더 화나게 만든다고!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맞아 나는 네가 누군지도 몰라 네가 느꼈던 아픔에 깊이는 헤아릴 수도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없겠지 하지만 너도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유 없이 괴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롭혔잖아 그럼 같잖은 위선일지라도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그게 무슨.. 하하.. 진짜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.. 솔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직히 도망칠 줄 알았는데.. 정말.. 이런 사람도 있구나.. 참 이상해 이상한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사람이야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내가 그때 네 곁에 있었더라면 그 나쁜 놈들 다 혼내줬을 거야!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폼.. 무슨 수로?

**하연이 은우를 다시 끌어안는다.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아 몰라! 암튼..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겠지만 고생했어.. 정말 많이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괴롭혀서 미안해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 넌 여전히 멋진 사람구나..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여전히..?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잠시만.. 그게 무슨 소리야! 야.. 김은우!

**S#21 교양 강의실 안 - 실내/낮**

**큐브를 맞추고 있는 하연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아 왜 안 맞는 거야..!

**모자와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은우가 하연에게 다가간다.**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어.. 저기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네?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혹시 큐브 한 번만..  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 아.. 네  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 여기 면이 안 맞을 땐 이 공식을 써서 이렇게..

*김은우(N)        너는 나와 다른 면이 너무 많았다.*

**맞춰지는 큐브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헐 대박!! 그 부분에서 계속 막혔었는데.. 감사합니다!!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아.. 아니에요

*김은우(N)       너는 항상 밝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고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저는 하연이에요 이하연 혹시.. 이름이?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저.. 저는 진우.. 김진우요

*김은우(N)       나는 음침하고 잘하는 거 하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.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엥.. 출석 부를 때 그런 이름이 있었나..?

서다혜           야! 이하연 뭐해~

**다혜가 하연에게 다가오자 황급히 자리를 뜨는 은우  
맨 뒤에 있는 자리에 앉아 하연과 다혜를 지켜본다.**

*김은우(N)       친해지고 싶었지만  
내가 다가가면 너도 괴로움을 당할까 무서워 멀리서 지켜만 봤다.*

**가방에서 키링을 빼는 재욱, 그걸 하연에게 주면서,**

서재욱           키링 예쁘다 했잖아요 여기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네? 달라는 말은 아니었는데..

서재욱           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받아요

**하연이 키링을 받고 자리를 피한다.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아.. 네, 저 먼저 가볼게요

박창식           오~ 서재욱 뭐야 이번에는 저기로 갈아타는 거야?

서재욱           그런 거 아니야

**벽 뒤로 숨어서 지켜보던 은우, 재욱에게 걸린다.**

서재욱           뭐야 찐우! 다 봤다 빨리 나와라

박창식           찐우가 뭐야

서재욱           찐따 은우 줄여서 찐우 고딩 때부터 내 짱친

박창식           와 작명 센스 개구려 너 대학 와서도 일찐 놀이하냐

**은우가 걸어와 재욱 앞에 선다.**

서재욱           음침한 새까 왜 엿보고 있어 너 설마 재 좋아하냐?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어? 아.. 아니..

서재욱           꼴에 남자라고 후기 알려줄게 딱 기다려

**눈을 부릅뜨며 주먹이 흔들리는 은우.**

서재욱           야 눈에 힘 빼라 그러다 한 대 치겠다? 아니다 형이 넓은 아량으로  
한 번 봐줄게 대신 PC방 가게 내 계좌로 5만 원만 보내놔  
확인했는데 없으면 그땐 진짜 뒤지는 거야

**재욱과 창식은 은우를 밀치며 유유히 사라진다.**

박창식           무슨 PC방 가는데 5만 원이나 필요해 진짜 개 양아치다

서재욱           뭐래 밥은 안 먹냐

박창식           하긴.. 먹을 건 못 참지~

**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서 멍 때리는 은우에게 하연이 다가온다.**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진우 씨? 괜찮아요..? 혹시 저 사람들이 괴롭힌 건 아니죠..?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아니에요..

*김은우(N)       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매일 생각하며 변하고자 했고  
너에게 맞는 사람이 될 때 다가가고 싶었다.*

**S#22 학과 건물 1층 입구 앞 - 실내/밤**

*김은우(N)       변할 수 있는 공식,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 
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.. 그저 용기 그뿐이었구나*

김은우           다음 생이란 게 존재한다면.. 그땐.. 그때는 나랑 친구.. 해줄래?

이하연           (눈물을 흘리며) 무슨 당연한 소릴.. 이미 우린 친구잖아!

**은우는 환하게 웃으며 완전히 소멸되고,**

**완성된 큐브가 떨어진다.**

**END.**